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후 제3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7. 빛나고 높은 보좌와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주님, 눈으로 보아도 보이지 않고, 귀로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고,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어 안타깝지만 주님은 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때로는 앞에서 이끄시고 때로는 뒤에서 지켜주십니다. 척박한 도시에 피어난 풀꽃 한 송이 속에서도 밝은 얼굴을 볼 수 있는 눈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웃과 피조물의 신음 속에서 주님의 신음을 듣게 해주십시오.

주님, 마음의 욕정을 따르느라 버려졌던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되찾고 싶습니다. 굳어진 우리 마음을 새 살과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감사와 감격과 경탄이 우리 생의 내용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웃게 해주시고, 지금 우는 이들과 함께 울게 해주십시오. 본향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누군가의 좋은 동행이 되어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롬8:33-34 인도자

♠ 교 독 문 12. 시편 32편 다함께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황경순 집사 II. 윤석철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송 471. 십자가 그늘 밑에 다함께

성경봉독 I. 마12:33-37 인도자

II. 마11:16-19 박경선 집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예수 외우기 김재흥 목사

II. 어깨동무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 현신의 찬송 369.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다함께
- 헌금봉헌 다함께
- ♠ 봉 헌 송 69. 나 가진 모든 것(1,2)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 공동체 소식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경쟁이 지배하는 세상이지만 여전히 협동과 돌봄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몸으로 증거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앞길을 열고 계십니다.

다 함 께 : 아멘. 우리의 감정과 지성과 의지가 오로지 중심이신 주님을 향하게 해주십시오. 넘어진 이를 버려 두고 홀로 질주하여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진 일을 일으켜 세워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랑의 승리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아멘.

- ♠ 결단의 찬양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6월 동교회 활동	말씀 : 김재흥 목사
아름답도다, 형제 자매의 사귄!	기도 : 황경순 집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성운 전도사 김기석 목사	김서현 선생 방문성 장로	인도자 하현철 권사

6월	영접위원	한상익	김정길	박석희	최숙화	김금순	조항미
	헌금위원	방문성	김근중	안길상	이순정	박혜경	박홍재

인간의 전체주의와 하나님의 전체주의

심리학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세 가지라고 말한다. 소속감, 의미, 적당한 안전. 첫 번째 욕구는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소속감이다. 그대가 개인의 자유를 으뜸으로 삼을 경우, 그 자유가 그대를 곤경에 빠뜨려, 그대 자신과 남에게 골칫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삶의 으뜸은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충성을 바칠 만한 분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누구에게 굴복할 것인가?”하는 물음이야말로 궁극적인 물음이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굴복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돈에 굴복하고, 어떤 이는 섹스에 굴복하고, 어떤 이는 사회에 굴복하고, 어떤 이는 자아에 굴복했다. 한 신식 젊은이가 이렇게 말했다.“아무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자유롭거든요. 나는 내 차를 도로의 왼쪽으로 몰고 싶으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의 자아가 우쭐했고, 그래서 마주 오는 차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외적인 충돌은 그의 내면이 궤도에서 이탈했다는 표시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고 자유를 필요로 한다. 자유를 얻으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비행사가 마음껏 비행하려면 매 순간 비행수칙을 준수해야만 한다. 자유는 복종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완전한 자유는 완전한 질서에 복종함으로써만 누릴 수 있다. 완전한 자유는 하나님 나라에 복종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 도덕적·영적 질서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완전한 삶의 질서인가?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질서다. 예수는 기도를 가르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마6:9-10). 두 번째 구절이 첫 번째 구절의 뜻을 명확히 해준다.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행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뜻은 개인 안에서도 이루어지는가? 그렇다. 하나님의 뜻은 집단 안에서도 이루어지는가? 그렇다. 그것은 완전히 전체주의적인 질서다. 그것은 완전한 삶 속에서 완전한 복종을 요구한다. 그런 뒤에야 비로소 “당신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임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완전한 질서는 완전한 복종을 요구한다. 여기 “땅에서” 완전한 복종을 요구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체주의다.

독자들은 속으로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전체주의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있건만, 당신은 우리에게 또 다른 전체주의를 소개하고 있군요.” 그렇다. 훨씬 완벽한 전체주의다. 인간의 전체주의는 외적인 복종에 만족한다. 적응해라. 그러면 살아남으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마음속에 품은 생각까지 요구한다. 생각하는 것조차 하나님 나라의 승인을 받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가장 외적인 관계들에까지 손을 뻗어 그것들을 다스린다. “하나님께서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마21:43).

하나의 민족은 단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다른 민족이 하나님 나라를 대신 받게 될 것이다. 마음속 깊은 생각에서부터 민족 관계의 가장자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전체주의다. 그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것은 완전한 예속이군요.” 기묘하게도 그렇지 않다. 그것은 완전한 복종이 이루어지면 완전한 자유를 주는 전체주의다. 나는 주장하지 않는다. 단지 증언할 뿐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 속할수록, 나는 더욱더 나 자신에게 속한다는 것을, 그분께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나는 여타의 모든 것 앞에서 당당히 서게 된다. 그분에게 매여 있으면 매여 있을수록, 나는 대지를 자유로이 확보하게 된다. 실재 전체가 나를 후원하는 것이다. 확보하는 것만이 아니다. 복종함으로써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그러한 전체주의를 고안해내실 수 있다. 그것은 복종하는 자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는 전체주의다.

나치주의, 파시즘, 공산주의 같은 인간의 전체주의와 하나님의 전체주의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인간의 전체주의에 완전히 복종하는 사람은 완전한 예속을 발견할 뿐이고, 하나님의 전체주의에 완전히 복종하는 사람은 완전한 자유를 발견한다. 그것이 바로 삶이 내리는 평결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열광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성공회의 한 주교가 이렇게 말했다. “스탠리 존스는 하나님 나라에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반응했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멋진 사로잡힘이 될 것입니다.”

여 백

언덕 위에 줄지어 선 나무들이 아름다운 건
나무 뒤에서 말없이
나무들을 받아안고 있는 여백 때문이다
나뭇가지들이 살아온 길과 세세한 잔가지
하나하나의 흔들림까지 다 보여주는
넉넉한 허공 때문이다
빽빽한 숲에서는 보이지 않는
나뭇가지들끼리의 균형
가장 자연스럽게 뻗어 있는 생명의 손가락을
일일이 쓰다듬어주고 있는 빈 하늘 때문이다
여백이 없는 풍경은 아름답지 않다
비어 있는 곳이 없는 사람은 아름답지 않다
여백을 가장 든든한 배경으로 삼을 줄 모르는 사람은

-도종환

◇ **주님의 교회**를 설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조병무 송양진 김윤수 김필순 박영희 박애순 이광용 형인순 임원민
 임수연 김지호 권미숙 최종미 왕성환 강순배

월정헌금:

고속이 김정섭 김중철 고영애 문복순 박옥순 송임희 유증희 이재문
 이갑재 이재구 황선희 이정은 전영규 김경수 전영자 황경자 김지현
 김지은

감사헌금:

윤정덕 구성실 우순덕 하재두 김지혜 이서현 황경순 정복순 김은영
 이해동 맹은선 오정숙 허경기 김병준 박범희 무명4

생일감사헌금: 배삼순

캄보디아 우물헌금:

김준호 이형석 윤미경 윤수진 박경선 박경원 중고등부

100주년 기념 감사헌금:

양재성 장영숙 이봉옥 (누계: 69,950,000원)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차혜심	오송경	송임희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노순옥	정경례
안디옥	임정자	이춘희	서원금	진정애
가나안	문영혜	박경선	이명희	문영혜
갈릴리	안정숙	박애순	진정숙	최희영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오정숙	문복순
시온	박효선	허정윤	허정윤	임미심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이기분	권미정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이봉옥	이순정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권명자	이형숙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오현정	정현주
나사렛	백혜숙	정옥영	김시영	정옥영
갈라디아	송양진	유경순	송양진	김수진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유혜경	이증자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임창선	박혜경

